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7 스페셜대회'가 9월 22일부터 3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개최도시와 경기장을 주요 코스로 선정해 붐업조성 효과를 함께 노린다는 포부다.

평창 성공 기원…'250km 은륜 축제' 열린다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 22일 개막

예선 거쳐 23개팀 200여명 '스페셜 대회' 선발
김동환-김정우 부자, 최연소 오윤창 씨 등 눈길

Tour de Korea 2017 Special Race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투르 드 코리아 2017 스페셜대회'가 9월 22일부터 사흘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개최도시와 경기장을 주요 코스로 선정해 대회의 성공을 위한 국내 홍보 및 붐업조성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도로사이클 동호인 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7 스페셜대회'는 총 4차에 걸친 치열한 예선전(프리 테스트)을 거쳐 선발된 23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총 250km의 코스에서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다. 22일 오전 10시 강릉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강릉일대 총 79.7km 코스에서 첫 날 레이스가 열린다. 23일에는 정선 일대에서 84.0km, 24일에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까지 83.4km의 구간에서 진행된다.

눈여겨 볼 참가자가 있다. 부자가 동반 출전하는 김동환(55)씨와 김정우(25·이상 팀 프로사이클)씨다. 부자는 2년 연속 대회에 출전한다. 예선 성적도 좋았다. 아들이 전체 16위, 아버지가 전체 17위를 차지했다. 최연소 출전자는 20세의 오윤창(팀 에르마노스)씨다.

팀으로는 단체 종합 3연패를 노리는 팀 캐니언-LSR을 비롯해 이 대회에서 줄곧 2위에 머물렀던 팀 위아위스 세븐힐즈, 투르 드 DMZ 국제자전거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킨 팀 브레이브 사이클링 등이 우승 후보다. 그 밖에 팀 트렉-화신, 큐브 DMZ 용산레이싱, 라파레이싱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무선데이터망(LTE)을 통한 실황 중계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대회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TV,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볼 수 있다. 스포츠전문 케이블TV채널 skySports를 통해서 대회 이틀째 레이스와 마지막 경기가 생중계 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2018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지역에서 국내 유일의 도로사이클 동호인 대회 투르 드 코리아 스페셜 대회가 벌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펼쳐지는 세계최대 동계이벤트의 성공 염원을 담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대회가 자전거 산업 발전과 사이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큰 기대를 전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한일전서 보여준 우리은행 '5연패 저력'

〈통합〉

김정은·박혜진 활약…최강 일본 2팀 제압
위성우 감독 "추석은 하루만 쉬고 강훈련"

"우리만 정체된 느낌이에요. 감독이 못난 탓인지…."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위성우(46) 감독은 9월 18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2017 한일 여자농구 클럽 챔피언십' 최종전을 앞두고 대뜸 이렇게 말했다. 새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현재 전력이 영 미덥지 않다는 푸념이었다. 반면 다른 팀들은 비 시즌 동안 알찬 보강을 통해 전력 향상을 이뤄냈다는 부러움이 함께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소연은 단 몇 시간 만에 엄살로 판명됐다. 지난 시즌까지 통합 5연패를 달성했던 저력이 그대로 발휘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016~2017시즌 한일 여자프로농구 패권을 놓고 다퉜던 4개 팀이 모인 클럽 챔피언십에서 2승1패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생명에 58-64로 졌지만 일본 최강이라 불리는 JX를 대회 첫 날 81-70으로 꺾고, 토요타자동차와 최종전에서 67-58로 이겨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주축센터 양지희(33)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맏언니 임영희(37)의 기량은 그대로였고, 주포 박혜진(27) 역시 변함없는 득점 능력을 자랑했다. 여기에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김정은(30)이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공격은 전보다 오히려 강해졌다. 아직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최은실(23)까지 복귀한다면 높이에서도 우세하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을 상대했던 일본팀들 역시 저력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1차전에서 맞붙은 JX 사토 키요미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확실히 삼성생명보다 우리은행의 전력이 한 수 위였다"며 단번에 상대의 수준을 인정했다. JX는 일본여자프로농구(WJBL)에서 최근 9시즌 연속 우승을 거둔 최강팀이다.



WKBL 통합 5연패에 빛나는 우리은행은 여전히 탄탄하다. 9월 18일 막을 내린 한일 여자농구 클럽 챔피언십에서 압도적인 경기로 우승을 차지해 새 시즌의 전망을 밝혔다. 임영희(가운데)의 대회 MVP 수상을 축하하고 있는 우리은행 선수단. 사진제공 | WKBL

일본 전지훈련에 이어 한일 클럽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은행은 이제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옥훈련으로 유명한 위성우 감독은 마지막 한 마디로 앞으로의 과정을 대신 전했다.

"추석이요? 명절 연휴엔 하루만 쉬면되죠, 뭐."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혼성종목 궁합이 중요한데" 한국사격 새판짜기 골머리

실업·아마추어 대부분 남녀팀 구분

한국사격이 '새판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6월 집행위원회에서 2020도쿄올림픽 사격의 세부종목을 변경하면서다. IOC는 사격황제 진종오가 2008베이징대회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올림픽 3연패에 성공한 50m 권총을 비롯해 50m 소총복사, 더블트랩 등 남자 3개 종목을 폐지했다. 대신 10m 공기권총, 10m 공기소총, 트랩 등 혼성종목 3개를 신설됐다. 여성 선수들의 참가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만 했을 뿐, IOC는 왜 해당 종목이 사라져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사격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진종오의 올림픽 4연패가 무산된 50m 권총도 아쉽지만 한국은 최근 소총복사에서도 상승세였다. 리우올림픽에서 김종현이 은메달을 땄지만 이제는 새로운 준비가 필요해졌다. 진종오 외에도 김장미 등 세계적인 명사수를 꾸준히 배출한 만큼 우리 사격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한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다. 혼성사격은 남녀 선수가 번갈아 방아쇠를 당기는 터라 실력 외적인 요소가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신의 실수가 동료에게 나쁜 흐름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부담이 몹시 크다. 사격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둔 중국도 혼성종목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다.

혼성종목의 핵심은 분명하다. 궁합이다. 남녀 사수들이 꾸준히 호흡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혼성은 같은 팀에 속한 남녀 선수들이 있을 때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실업도 아마추어도 대부분 남녀 팀을 따로 운영한다. 대한사격연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대표팀이 강화훈련을 하지 않는 한 선수들은 각자 따로 연습해야 한다. 그래서 주요 국내대회에 혼성경기에 대비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타 팀 선수들과 묶여 호흡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혼성이 아닌, 동성 선수들로라도 새 시스템에 적응해 경기 감각을 확실히 익히자는 방안이다. 연간 세부 스케줄을 이미 소화하는 2017년은 불가능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이 열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정작 대회 조직위원회가 세부종목과 스케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아직 받지 못했다. 다만 사격 세부종목은 예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황당하게도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인근도시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 사격종목을 소화하는데, 마련한 선수촌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출전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이 포기한 대회 유치권을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간 터라 미적지근한 개최준비 상황에 불만은 많지만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도 강력한 압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격연맹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1차 준비가 아시안게임인데, 여러 모로 걸림돌이 많다. 맞춤형 준비도 필요하고, 경기방식에 적응할 필요도 있다. 물론 모든 부분의 출발은 아시안게임 세부종목 확정"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소양교육

스포츠733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9월19~20일 태릉·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매너 및 미디어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실시한다.

9월 소양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M스피치 스쿨 맹시내 대표가 진행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디어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인터뷰 시 발성, 시선 처리, 제스처, 자세, 표정 등을 교육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주는 인사예절, 식사예절, 언어예절 등 대인관계 매너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미디어 앞에 서는 자신감을 얻고, 국민과의 소통능력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주제의 소양교육을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다. 소양교육의 주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선정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스포츠 토토

"KIA 6~7점, SK 4~5점" 강추

야구토토 스페셜 89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토토가 9월 20일 열리는 2017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89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했다. 그 결과 2경기 KIA-SK전에서 49.87%가 KIA의 우세를 예상했다. SK의 승리 예상은 32.30%였고 나머지 17.82%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전망했다. 최종 점수대는 KIA(6~7점)-SK(4~5점) 항목이 1순위(4.33%)를 차지했다.

1경기 LG-한화전에서는 45.93%가 LG의 승리를 예상했고 37.80%는 한화의 승리에 투표했다. 16.27%는 두 팀의 같은 점수대를 선택했다. 최종 점수대는 LG 4~5점, 한화 2~3점 예상이 4.97%로 최다를 차지했다.

마지막 3경기 NC-두산전에는 46.23%가 원정팀 두산의 우세를 내다봤다. 홈팀 NC의 승리는 34.11%를 차지했다. 같은 점수대는 19.68%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는 NC(10점+)-두산(10점+) 항목이 1순위(4.56%)로 집계됐다.

케이토토는 "최종 순위 경쟁이 한창인 시즌 막바지인 만큼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 주요경기가 많다. 올 시즌 각 팀의 누적된 수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관전의 재미는 물론 적중의 기쁨까지 한번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야구토토 스페셜 89회차 게임은 9월 20일 오후 6시 20분에 발매가 마감된다.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야구토토 스페셜 89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9일 오전 9시 현재)

경기번호	1경기		2경기		3경기	
홈-원정	LG VS 한화		KIA VS SK		NC VS 두산	
경기일시	9.20(수) 18:30		9.20(수) 18:30		9.20(수) 18:30	
순위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점수대	투표율
1	(4~5)-(2~3)	4.97%	(6~7)-(4~5)	4.33%	(10+)-(10+)	4.56%
2	(6~7)-(2~3)	4.84%	(6~7)-(2~3)	4.30%	(4~5)-(6~7)	4.46%
3	(6~7)-(4~5)	4.80%	(10+)-(4~5)	4.23%	(2~3)-(6~7)	4.12%
홈팀 승	45.93%		49.87%		34.11%	
같은점수대	16.27%		17.82%		19.68%	
홈팀 패	37.80%		32.30%		46.23%	

* 게임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코어 맞히기 *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9. 20(수) 18시 20분

"스포츠토토 소액으로 즐겨요"

스포츠팬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은 스포츠토토의 인기비결이 소액구매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100원부터 참여가 가능한 소액구매 시스템이 고객들이 느끼는 스포츠토토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프로야구 2~3 경기를 대상으로 최종득점을 맞히는 야구 스페셜 게임의 최근 구매금액의 경우 참가자들의 평균 참여금액이 4000원대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축구 스페셜, 야구 스페셜 등 인기게임 대부분의 1인당 평균 구매금액 역시 모두 1만원 이하로 나타나, 스포츠토토가 소액으로 참여하고 스포츠를 더 즐겁게 관전하는 스포츠레저 문화로서 정착했음을 보여줬다.

건전하고 즐거운 여가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는 더욱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해 구매자들의 소액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1인당 구매금액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스스로 게임 몰입도를 측정하는 '자가진단테스트'서비스를 제공해 과도한 게임 몰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변진재, 제네시스 챔피언십 1R 언더파" 55%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 중간집계

국내 골프팬들은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1라운드에서 변진재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9월 21일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에서 열리는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55.36%가 변진재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7번 이승택(53.13%), 6번 장이근(51.81%)이 50% 이상의 언더파 확률을 기록한 가운데 박은신(49.06%), 최진호(48.10%), 이형준(42.46%), 이정환(40.01%)은 50% 이하의 언더파 확률이었다. 한편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스코어는 장이근(28.85%), 변진재(25.98%), 이승택(25.53%), 박은신(25.33%)의 1~2언더 예상이 1순위였다. 이형준(27.51%)은 이븐파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정환(26.24%), 최진호(21.56%)는 1~2오버파 예상이 1순위였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이다.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는 해당 회차의 배당률에 베팅 금액을 곱한 만큼의 적중상금을 준다. 골프토토 스페셜 27회차 게임은 9월 20일 저녁 9시 50분 발매를 마감한다. 1라운드가 모두 종료된 뒤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한편 골프토토 게임은 선수의 개인상황과 현지 사정으로 대상선수가 변경될 수 있어 게임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지정선수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